

# 나와 민청학련 사건

● 김 병 곤

\*김병곤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상대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 1973년 유신체제하 최초의 서울대 시위를 주도한 이래,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고 석방된 후에도 민청련 운동, 1987년 구로항쟁 사건 등으로 구속되는 등 치열하게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다. 1988년 위암이 판명되어 3년 여의 투쟁 끝에 1990년 12월 6일 영면하였다.

다음 글은 1989년 경 암투병 중인 병상의 김병곤씨에게 부인 박문숙 여사와 김희택 동지(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가 질문을 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문 성장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답 성장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버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시. 아버님께서는 “옳게 살아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셨어. 예를 들면 3선개헌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월남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어.

그러니까 “월남 파병이 실제로는 미국이 약한 나라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군대를 파병한 것이다” 하는 교훈을 받으며 자랐고, 그래서 세계사를 바라보는 눈에서, 보통 말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어. 그 분은 국어 선생이었고 시인이었는데,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 그 점이 나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

그 다음에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바로 3선개헌 할 때인데, 그때 3선개헌이 왜 하면 안되는가, 왜 나쁘냐 하는 점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몰래 몰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랬거든. 대학 시절에 3선개헌이 나쁘다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갖게 되었던 것도 그분 덕분이었지. 그래서 3선개헌 이후 첫 대통령 선거 때

“3선개헌을 한 사람이 박정희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박정희가 하는 것보다는 김대중씨가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 참여한다고. 당시 선거참관단이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나는 대학생 참관단으로 참가하게 되고. 그때는 서클에 가입하긴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서클에 관여하지는 않았어. 서클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1학년 8월에 성남 대단지 사건이 발생하고, 대한항공 임금 체불 항의사건이 나고, 그 전해에는 전태일 씨 분신 자살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교련 반대 사건도 물론이고.

전태일씨 분신 자살사건, 그리고 교련 반대 사건 하고 대통령선거 참관단 사건, 성남 대단지 사건,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임금 체불 항의사건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원주 문화방송을 정부에서 떼먹어 버리는데, 그래서 부정부패 반대 데모가 2학기 때 되게 심하게 일어났지.

서클에 내가 들어간 게 언젠고 하면, 새 학기 5월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어. 처음에는 서클에서 뭐 하는지 잘 몰랐어. 그러다가 언제 내가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하면, 광주대단지 투쟁이나 선거 투쟁이나 이런 것만 할 때도 제대로 몰랐어. 전태일 사건과 성남 대단지 사건이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주에 걸쳐서 한다고. 그 기간에 거기 사는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타파하는 것이 학생운

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깨닫고, 학생운동에 대해서 좀더 뚜렷한 목표를 깨닫게 되었지.

그 다음에는 2학년 때 10월유신이 나는 바람에 전혀 꿈쩍을 못하게 만들었거든. 전혀 꿈쩍을 못하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어. 3학년 때쯤일 거야. 3학년 때(1973년) 8월 여름방학에 김대중씨를 일본에서 납치하는 사건이 난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론이 아주 나빠졌어. 3학년 때 처음에는 문리대, 법대, 상대 세 군데서(특히 문리대에서 나병식씨하고 법대의 누구하고 상대의 나하고) 다 같이 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다 따로 따로 하게 된다고. 문리대에서 10월 2일 데모 하고, 법대에서 10월 4일 하고, 상대에서 10월 5일 데모를 하거든. 그런데 아무도(표면에) 안드러냈지. 상대에서 나밖에.

10월유신 나고 처음 데모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데, 데모 한번 했다고 구속하는 게 그때가 처음이야. 그때 문리대에서 열댓 명이 구속되고. 문리대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이 다 구속되었어. 법대도 마찬가지로. 상대는 아예 현장에서 구속되는 사례를 내가 거의 없애 버렸어. 나하고 둘이만 구속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상대에서는 좋아했지.

그때 3개월 살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구속하는 아주 강경한 조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데모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겁을 먹고 제1차 석유파동을 핑계 삼아 전부 다 석방한다고. 공소 취하로. 그래서 12월에 나왔지.

그러고 나서 민청학련사건이(1974년) 4월달이지. 12월에 석방되고 나서 바로 준비했지. 방학 동안에. 나병식, 정문화, 이철,

황인성, 이현배, 유인태, 안양로 등과 준비했지.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준비를 철저히 못했고, 이철, 유인태, 이현배. 사형 구형받은 사람들은(다는 아냐) 깊숙히 관련되어 있었지. 김지하도 관련되어 있었고. 전부 7명(그때 인혁당은 상관 없어. 나중에 우리하고 입을 맞출려고).

73년 이후에 김대중씨 납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서울 문리대 내에서 여기서 한 번 치고 나가야 된다고 주장한 파가 있었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파가 있었거든. 결국은 지금은 해야 한다고 한 파에서 했잖아. 그래서 지금 해서는 안된다는 파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하고 나서는, 결국은 성공을 거두었던 말야.

그리고 나니까 그때 하지 말자 한 사람들이 조금 자격지심을 느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뭔가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현배, 이철, 유인태, 그 다음에 안양로 씨도 그때 열심히 하고, 하여간 그때 구속 안된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지.

전국적인 조직은 6·3사태 당시에 있었던 조직을 연결지어 가지고 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조직은 전남 하고(그 당시부터 전남이 썩어) 경북이 좀 썩어. 경북보다는 전남이 썩어. 전남에서 윤한봉씨하고 이강씨 하고 두 사람이 나왔고, 경북은 이강철씨가 나오고, 그 당시에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데모를 조직하는 거야. 나는 2월 경부터 시작했어. 우리가 12월에 나왔거든. 시골 갔다가 2월에 합류했거든. 3월부터 나는 서울 시내의 조직책을 맡고, 황인성씨가 지방조

직을 맡고, 1선 조직이 이철, 정문화, 황인성, 나 4명이었거든. 우리는 1선 조직에서 이철씨가 나이가 제일 많아 총책임을 지고, 2선 조직은 유인태씨가 책임을 지고, 지방은 2선 조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

김지하씨가 지학순 주교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그 당시 지주교한테 돈 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직접 전해 주었다고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 돈을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또 박형규 목사가 윤보선씨한테서 돈을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고.(윤보선씨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구속됐지) 윤보선씨 돈을 나병식씨가 받았던 걸로 기억해.

당시에 6명에게 사형 구형을 한 것은 우선 서울서 1선 조직 중에서 이철, 유인태(2선 조직이지만 사실상 1선 조직에 진배없이 일을 했거든), 그 다음에 김지하 하고 이현배는 전국 조직을 연결해 주는 데 영향을 미쳤고, 김지하, 여정남 포함하여 7명이거든. 이철, 유인태, 나병식, 나, 이현배, 그 다음에 여정남, 김지하, 이렇게 7명이야.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몰랐어.

안 잡힌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 조영래·장기표 형도 수배되었거든. 그런데 기표형은 안 잡혔을 텐데, 원래는 수배도 안되었을 텐데, 「민중의 소리」라는 것을 내가 썼다고 하기로 했는데 내가 썼다고 못했어. 왜 그랬느냐 하면, 사람들이 필적을 보니까 내 필적이 아니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 내 필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니깐 내 필적이라고 도저히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어. 내 필적이라고 뽀뽀 우기다가 실컷 두들겨 맞다가 할 수 없이 결국은 내 필적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기표형을 붙였지. 기표

형은 몇 년을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썩 잘 받지는 못했어. 어차피 이철씨는 수배되어 있었으니까 이철씨에게 많이 미루었지. 그런데 이철씨가 상당히 불편해 했어. 잡혀 와서 조사 받을 때.

문 그런데 상대에서는 몇 사람 없었잖아? 몇 사람 없는 중에 구속된 사람은 한 명인데……

답 원래 상대 쪽에서는 나만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

문 그리고 민청학련을 준비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지?

답 1학년 때의 교련 반대나 대통령 선거 참관인 할 때만 해도 그냥 반대 차원에서 끝났는데, 유신이라는 게 상당히 결정적인 계기였어. 10월유신이 났을 때 내가 학교 옆에서 하숙을 했거든. 하숙방이 두 서너 평 되는데, 그 방에 무려 열 몇 명이 모여 갖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된다”고 전부 다 결의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73년 10월 데모 마치고 나와 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제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이제는 사생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민청학련을 했던 사람도 다 그런 심정이었어. “이거는 아예 없애야지, 그냥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게 1학년 때나 2학년 때하고 확실히 달라진 거고, 유신 이후로는 계속 심정의 변함이 없었지.

민청학련 때는 10개월 살고 나왔어. 4월 8일 잡혔는데, 부산 서 잡혔어. 그때 마산에 내려갔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괴정 누나 집에 들렀는데 괴정 자형이 형사한테 피었어. 내가 그리 간다고. 돈을 좀 달라 하니까 자형이 연락을 했어. 그래서 잡힌 거

야.(개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음)

잡혀가지고, 부산에 해운항만청이 있거든. 거기가 바로 부산 중앙정보부거든. 거기서 몇 시간 있다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올라왔는데, 야 거 참 심정 비참하더라. 수갑 차고 또 묶여 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서울에 와 가지고 집에 연락을 안해 주고(약 6개월 정도) 우리한테는 밥도 안 팔고, 빵도 안 팔고. 돈이 있어도 하여튼 배가고파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폭행한 정도가 아니라, 책상 다리 부러뜨려서 두들겨 패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두들겨 패고, 그 당시에 인혁당 쪽에서 다친 사람이 많지. 하재완씨는 장파열되고. 탈장된 사람도 있고. 당시 잡혀 간 사람이 1,023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해. 인혁당은 따로 재판받고 항소심은 같이 받았어. 김지하씨는 우리 하고 같이 갔고. 4월 8일 들어가서 이듬해 2월 15일날 석방되어 나왔으니까.

민청학련 사건으로 나오고 난 후, 맞은 것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되게 고생했지. 계속 서울에 있다가 75년 가을에 추석 때 내려갔지. 겨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민청학련 사건 재판과도 관련이 있지 않아? 76년 5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

답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취직을 하려고 했어.

문 75년도에? 취직하려고 서울에 언제쯤 올라왔어?

답 75년 중반쯤에 취직하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공장 취직이 아니고, 그냥 회사 취직하려고 올라왔거든. 그런데 그때쯤에 할아버지가 중태시더라구. 그래서 기다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12월 달에) 75년도 말에 서울에 올라와 가  
지고 76년도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아버지 생신이 음력으로 4  
월달이니까) 아버님 생신 때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중풍에 걸려 계시더라고(고혈압). 그래서 그냥 집에서  
대기했어.

5월 5일날 어머님 돌아가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집안  
살림 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잖아. 동생도 그때 학교 다닐  
때고. 피정 누나 시집 갔을 때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아버지  
한테 재혼을 강권했다고. 살림 살 사람도 그렇고, 아버님 혼자 계  
시는 것보다 두 분이 계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재혼을 강권했  
지.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 76년 9월 달에.

문 그리고 서울 올라왔어?

답 그후 내가 취직이 되었어. 인천의 코리아하이답프에.

문 그러면 76년도 연말에? 코리아하이답프에는 몇 년 몇 월  
달까지 있었어?

답 78년 1월달까지 있었지.

문 그리고 EYC에 와 있었지?

답 정리하고 바로 그리 갔지.

문 그때 동일방직 사건 사진 배포하고, 그리고 EYC에서 2  
월달부터 일했고, 동일방직 사건으로 구속되어 들어간 게 3월달  
이지?

답 4월 달에.

문 그때 구속한 이유는?

답 유언비어. 사진 배포한 것으로 유언비어가 유행하지 않

으니까 교회에서 하계수련회 가서 발언한 내용으로 엮었지.

문 그때 그것이 메모인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면서?

답 내용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문 글씨체인지 녹음인지 잘 모르겠네? 발제한 주제가 무엇인데?

답 해방 이후 이승만이는 친일분자만 기용하고, 북한은 친일분자들을 숙청했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유언비어가 되어 그 래 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것이 건수가 안되잖아? 그래서 서울구치소가 가지고 그때 단식하고 그랬던 게 추가(追加刑) 떨어져 가지고 지방으로 간 거지?

문 그때 형량이 얼마였어?

답 3년 받아서 1년 8개월 만에 나온 거야.

다음 내용은 김병곤 동지의 추모문집에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이철 공동대표가 김병곤 동지를 그리며 쓴 글이다.

“이 자식아, 자꾸 거짓말만 해대지 말고 이거나 읽어봐!”

수사관은 다시 몽둥이 찜질을 하려다가 맘을 고쳐먹은 듯 왼손에 움켜쥐고 있던 야전 침대봉을 책상 모서리에 기대 놓으며, 한 손으로 한 몽치의 서류를 내가 있는 책상 위에도 팽개쳤다.

4박5일째 눈 한번 붙여 보지 못한 채 연이은 신문과 고문에 지친 나의 몸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겨우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머리는 빠개지는 듯이 아팠다. 벌써 며칠째인가. 찢어지는 듯한 머리의 통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



▲ 1975년 2월 17일 기독교회관에서 석방학생 촬영회가 열렸다.

다.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더욱 알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의 심연이었다.

날카롭게 윙윙대는 소리가, 어릴적 한 겨울의 들판에서 친구들과 내뿜 때면 전봇대 위에 늘어진 전선이 찬 바람을 맞으면서 소리 내어 우는 그런 매서운 소리가 나의 귓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수사관의 고향소리는 또다시 어김없이 고막을 때렸다.

“짜식, 읽어 보라니까!”

나는 수갑을 찬 손을 책상 위에 옮겨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쳐진 서류를 뒤집었다.

‘병곤이 글씨다!’

김병곤의 글씨. 이 얼마나 눈에 익을 글씨인가. 단아하면서도 멋지게 이어 나간 이 필체.

삼양동 별집 한 칸을 월세로 얻어 김병곤, 나병식, 정문화, 황인성, 그리고 나 이렇게 다섯 사람이 기거하면서 ‘유신 타도’를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해 왔던 지난 몇 개월 간 실장 김병곤은 우리의 서사(書士) 노릇을 단단히 해냈다.

「민중의 소리」와 같은 분량이 많은 문건은 타자기를 구해서 밖에서 등사용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민중·민족·민주 선언」이라든가 「결의문」,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 등 한 두 쪽짜리 몇몇 문건은 김병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말이 좋아 몇몇 문건이지만 각 종류마다 수만, 수십만 장을 등사해야 했기 때문에 병곤이는 한 문건마다 몇 차례씩이나 등사원지 끊는 작업을 계속해야만 했다.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그 유려한 필체. 그 일을 도와주는 나머지 우리 네 사람은 병곤이의 글씨를 보고 또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이제 그의 그 유려한 필체가 ‘진술서’란 이름이 붙여져 눈앞에 다시 놓여 있는 것이다. 나는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상기 본인은 지난 1974년 3월 18일부터 피의자 이철, 정문화, 황인성 등과 도봉구 삼양동 763-1번지 하숙방에 기거하면서 화염병 제작을 모의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구입한 박카스 병에 휘발유를 채우고 도화선을 붙여 사용기로 계획하고, 도화선은 성냥에 붙어 있는 유황을 가루로 만들어 미농지에 부착하여 만들기로 작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해 본 결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한 순간 숨이 막힘을 느꼈다. 피가 역류하여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이 녀석이 끝내 붙었구나.’

홍분으로 방망이질하는 나의 가슴, 부들부들 떨리는 내 손은  
수사관의 비웃는 눈초리에 노출되어 있었다.

‘어쩔 수 없지. 얼마나 당했으면 ...’

나는 아득한 절망의 늪을 건너 다시 또다른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다.

“상기 본인은 지난 1974년 3월 27일 23:00시 경 전술한 삼양동 하숙집에서 이철, 정문화, 황인성, 이근성 등과 회합하면서 유신 타도 투쟁에 사용할 유인물을 각각 분담 작성하기로 하고, 본인은 결의문을, 이철은 선언문을, 정문화는 메시지를, 황인성은 격문을 각각 작성하기로 하는 한편, 각각의 유인물 말미에 기재할 단체명을 넣자고 결의한 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바 정문화는 ‘반파쇼전국학생총연맹’으로, 김병곤은 ‘민주회복전국학생총연맹’으로, 황인성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으로 하자고 각각 제의한 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숨이 막혀왔다. 냉기만이 감돌던 중앙정보부 취조실 쇠의자 위에서 가물가물 사위어가던 나의 몸에 불끈 솟구쳐 올라서는 열기로 불덩이가 되었다.

‘이 녀석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죄다 불었던 말인가?’

북받치는 격정에 겨워 어찌할 줄 몰라하는 나를 수사관은 비웃음으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몇 시간씩이나 몽둥이질을 해대던 그때의 불붙는 눈길도 아니었다.

바른 말 하라고 추궁하던 그런 눈길도 아니었다. 그는 승리

자였고, 나는 패배를 끝끝내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어의없는 패배자였다.

“이제 됐어? 사실대로 써!”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쓸 순 없어. 무슨 까닭이 있었겠지. 견디기 어려운 고문 때문이었을까? 그러면 병곤이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병곤이를 만나야 한다. 꼭 얼굴을 봐야 해.’

나는 끝내 부인했다.

“아닙니다. 이견 사실이 아니예요. 대질시켜 주시오. 병곤이를 만나 봐야겠소.”

“이 짜식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정히 그렇다면 데려다 주지.”

수사관은 승리자의 비웃음으로 돌아서 문 밖으로 나갔다.

얼마나 홀렸을까. 중앙정보부 취조실은 또다시 침묵과 뒤범벅된 냉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어이없는 패배로 후끈 달구어진 나의 몸만이 수갑을 찬 채 쇠의자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정수리에는 여전히 부동자세를 취한 두 명의 헌병들의 칼날같은 차가운 시선이 박혀 있었다.

벌컥 문이 열렸다. 앞장선 수사관을 따라 들어서는 김병곤. 그는 환히 웃고 있었다. 푸른 수의(囚衣)에 하얀 얼굴, 큰 키에 늙은 자태—언제나 보던 그 미남이,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던 그 미소를 던지며 취조실로 들어섰다.

“형님 고생 많지요? 형님 잡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찍 잡혀서 이제 취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서대문 유학길로 떠나서 이렇게 관복도 얻어 입고

신세가 괜찮지요.”

“그래. 나도 곧 서대문으로 입교하게 되겠지.”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수사관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김 병곤을 데리고 온 수사관은 한쪽 구석에서 여유있게 전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패를 떠난 듯 느긋한 태도였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이거 진짜 내가 쓴 거야? 그대로 붙였어?”

병곤이가 빙그레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형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박카스병 사고, 내가 도화선 만들고 실패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 그 까짓것 다 그대로 붙어버렸지요, 뭐.”

그는 나의 눈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더욱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나는 순간 아차했다.

‘자기가 박카스병 사고, 자기가 시험하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래, 아무 것도 아니지. 기껏 박카스병으로 화염병을 만드려고 했던 게 무슨 사람이나 다치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었지. 인명을 다치지 않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는 게 뭘까 생각해낸 게 그것이 아니었던가. 그것마저도 자기가 했다고?’

나는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말을 잃었다. 그 까짓게 뭐 그렇게 숨길 일이라고 몇 시간 동안이나 버티면서 수백 번의 매질에 “아니요. 아니요”로 끝내 부인했던 말인가. 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나는 고개를 들어 병곤이를 쳐다 보았다. 저 환한 미소. 간혀 있는 자기 신세에 아랑곳없이 이런 터무니없는 걱정이나 하고 있는 나를 걱정하는 저 눈길. 내가 한 일을 자기가 한냥 붙어댄 그 희생의 마음. 또 다른 충격으로 멍해진 내 눈 앞에서 푸른 수의의 부처님이 서 있었다. 그 환한 미소로.

1974년 7월 9일의 군사법정은 몹시 무더웠다. 창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매미 울음소리가 귀청을 끝없이 두드릴 뿐 재판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이었다. 어깨 위에 번쩍이는 별판으로 위엄을 가장하고 있는 재판관들, 삼면을 에워싸고 도열해 있는 헌병들, 수갑을 차고 오랏줄에 팽팽 묶인 피고인들, 그 툼툼히 비집고 앉아 있는 푸른 제복의 교도관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엄청난 구형을 받은 피고인들이나, 터무니없는 구형으로 짧은 목숨을 앗아가려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헌병들, 교도관들, 모두들 말을 잇고 숨을 삭혔다. 재판정을 가득 메운 열기, 그 열기보다 더 큰 정적, 또 침묵.

“피고인 이철, 동 유인태, 동 여정남, 동 김영일, 동 김병곤, 동 나병식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검찰관의 떨리는 목소리는 일순에 재판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움직임 하나 없던 한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재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피고인들,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하십시오.”

나는 허둥대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유신 타도를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바쳐 아까울 게 없노라, 그러나 터무니없는 누명은 씩  
우지 말아 달라고 상기된 얼굴로 진술을 쏟아부었다.

유인태, 여정남도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는 구  
형과 주문에 넋을 잃고 있었다. 드디어 김병곤의 차례가 되었다.  
병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재판정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  
굴에는 때아닌 웃음이 가득했다.

“김찰관님, 재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사형이란 영광스런 구형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  
을 빼앗긴 이 땅의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걱정  
하던 차에 이 짧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  
음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는 모두 쳐다보았다. 만면에 가득  
한 웃음, 그 평온한 눈길, 그의 웃음과 그의 눈빛은 이미 이 속된  
삶의 욕구를 훌쩍 뛰어넘은 무념(無念) 바로 그것이었다.

‘저것이 바로 열반(涅槃)이 아닐까.’

나는 그의 눈길에서, 그의 웃음에서, 그의 자태에서 부처님  
을 보고 있었다.

김병곤의 집을 찾아나선 나는 무척이나 고생을 했다. 김해읍  
에서도 진영을 거쳐 또 삼십 리 길. 물어 물어 찾아나선 시골길은  
내가 잘 아는 동네이니 쉽게 찾으리라 믿었던 나를 낭패시켰다.  
몇십 리 버스길을 돌고돌아 또 십 리 길을 걸어 헤맨 끝에 산자  
락 끝 조그만 동네 모퉁이에 그의 초가집이 나즈막한 추녀를 드

리우고 있었다.

병곤이는 때마침 추녀 밑에 놓여 있는 몇 개 안되는 별통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다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들어선 나를 반겼다. 사랑채라 이름지어 부를 수 없는 진흙 벽돌로 둘러싸인 아랫방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안온한 이야기의 터가 되었다. 밤이 깊고 바깥으로 난 봉창이 밝도록 우리의 끝없는 이야기는 이어져 갔다.

“형님, 이런 터무니없는 세월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뻘뻘하게 일해도 끼니를 이을 수 없는 농민들,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종일 일에만 매달려도 삼 사백원 일당도 못 받는 노동자들, 입만 병긋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주리를 트이는 이 째깍한 세상. 이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밀수다 탈세다 하면서 가릴 것 없이 돈을 긁어모아 치부하고, 종업원들이 일당 백원 올려 달라면 내쫓고, 힘센 놈에게야 정치자금 갖다 바쳐 특혜나 얻고, 양놈 왜놈 물건 팔아 치부하고,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종업원에게는 겁주면서 정권 쥔 놈에게 부역이나 해야 행세깨나 할 수 있는 이 더러운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으나 힘으로 뭉쳐 있었다. 그의 눈은 굳은 결심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할라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나?”

“글쎄요.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이야기지만 그 이상 더 구체적인 게 뭐 필요할까요? 그저 민중의 한 사람으로 민중 속에서 살다 가면 그만이죠. 민중을 위해 버리려고 했던 목숨,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불쌍한 이 땅의 민중을 위해 던져 지기를 고대할 뿐이죠.”

턱을 고인 채로 열린 문 밖을 쳐다보며 잔잔히 대답하는 병곤의 얼굴을 나는 쳐다보았다. 새벽 별빛을 받아 빛나는 그의 눈동자, 찬바람 때문인지 더욱 결연해 보이는 굳게 다문 그 입술.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입술에서, 그의 잔잔한 목소리에서 부처님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이 더러운 세속을 맑게 씻으려 몸부림치는 젊디젊은 부처님을.

내가 그의 부음을 접한 것은 그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끝내 우리 곁을 떠나 버린 1990년 12월 8일 저녁이었다.

민청학련이라는 1970년대 반독재 투쟁 속에서 그를 만나 그로부터 십수년이 흘러 버린 지금, 이제 산자와 사자(死者)의 신세로 다시 해후하는 나의 마음은 솔직히 부끄러움뿐이다. ‘민중의 삶 속으로 탈속한’ 그의 삶과 투쟁이 지식인의 나약한 허위의식과 조잡한 관념의 파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민청학련 사건 이후에도 그의 삶은 줄곧 이리했다. 세상의 번민과 잡다한 생활상의 모든 문제들을 민중의 대의(大義)에 따라 ‘단순명료하게’ 실천으로 극복하였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후 1978년 동일방직 사건으로 재구속된 그는 1980년 이래 한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그의 이 기간을 자기 좌절이라거나 운동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 나는 보지 못하였다.

서른 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섯 차례나 겪어야만 했던 그의 투옥 경력이 말하여 주듯이, 민주화 운동의 최일선, 모든 현장

에서 그의 헌신적인 투쟁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이신작칙(二身作則)의 모범을 심어 주었다.

1987년 12월, 야권의 분열, 관권 금권의 부정선거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가 여당 후보의 압승으로 무사히(?) 끝날 것 같다는 저녁 뉴스가 보도되던 그날 저녁이었다. 또한 그날은 어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허물어지듯이 긴 한숨과 한탄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체념의 나락에 빠져들던 그런 저녁이기도 하였다.

1985년의 2·12총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양김씨의 분열로 무소속의 신분이 되었던 나 역시 패배의 현실에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날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발견과 이로부터 발단이 된 구로구청 농성투쟁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투쟁의 상황실장이 김병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역시 병곤이다!’

누구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우리’가 너무도 쉽게 패배의 현실을 인정하고, 너무나 영악하게 현실의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텔레비전 화면에 생생히 보도된 구로구청의 불붙은 모습은 그의 분노와 그의 노여움이 되어 좌절 속에 빠져 있던 우리 모두를 일깨웠다.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 다시 나타난 그는 크레졸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침상의 험악한 중환자의 모습으로였다.

그러나 나는 절망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던 그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그의 삶에 대한 낙관과 의지를 기억한

다. 사형을 구형받은 재판정에서 “감사합니다” 하던 그를.

지난 대통령 선거시 우리 모두의 좌절과 패배를 비웃거나 하듯이 새로운 투쟁의 전열을 만들어갔던 구로구청사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그리고 언제인가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던 시골집 마당에서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이 몸이 던져지길 바랄 뿐이다” 라던 그의 탈속한 얼굴을.

